

현대시조 주제에 대한 비평적 고찰

최재선*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시조의 다양한 주제 양식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시조의 제재를 시인의 자아, 혹은 인간사의 내면에 깃든 근원적 문제에 천착해 주제로 형상화한 작품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자아성찰과 시인의 자의식과 시인의식을 주제로 다룬 시조에는 메타시조 형식의 시, 시 쓰기에 대한 '시론'격의 작품 등이 있다. 시인 자신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치열할수록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와 시인의식이 주제로 표출된다.

둘째,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룬 시조는 죽음의 타나투스(Thanatopsis: 死觀)를 표현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깊은 담론보다는 직정적인 감정과 죽음에 대한 단상들이 표현되고 있어 이러한 주제에 대한 형상화는 운문보다는 산문의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다양한 제재가 시조의 영역에서 주제화되는 것은 현실적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생의 깊은 이면에 깃들인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셋째, 인간과 신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의식은 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시조의 경우 속약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삶을 방관하는 신의 의지에 대한 항의와 불만,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쓰인 시조에는 역설적으로 신의 섭리에 대한 순명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시조는 기독교 세계관과 종교적 신앙을 주제로 표현할지라도 시인이 지닌 자유로운 시 정신과 창작태도가 있다면 생경한 종교적 언어에 함몰되지 않고, 호교적 신앙시로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한국산업기술대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주제들은 우리 시조의 관심을 피상적인 현실의 문제를 넘어 생의 깊은 국면으로 전환해 그 이면에 깃들인 인간의 자아의식과 고독, 삶과 죽음, 절대적 존재에 대한 물음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식의 지평을 넓히고 현대시조의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현대시조, 현대시조의 주제의식, 자아성찰, 메타시조, 죽음의 타나툼 시스, 기독교 세계관, 시적 역설

1. 서언

이 글은 현대시조의 다양한 주제 양식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시의 주제란 시인이 작품 속에 소재를 다루어 나가는 통일 원리로서, 시인의 뜻이 형상화되어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사상이며, 시인이 구현하려는 인생관·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떤 소재에 대하여 느낀 인생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세분화될수록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양태 역시 다양해진다. 그것을 제재로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의 주제 선택과 표현방법 또한 다양하다. 시인의 경우 시의 대상이 되는 자연과 사회, 개인적 체험과 인생의 여러 국면들을 모두 시의 제재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 역시 시로써 쓰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화(motivation) 과정을 거쳐야 시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얻어진 시의 주제 또한 시적 표현과 형태를 지녀야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

주제의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시조의 제재를 인간사의 외부에서 취한 것보다는 시인의 자아, 혹은 인간사의 내

면에 깃든 근원적 문제에 천착하여 표현한 시조를 중심으로¹⁾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아성찰과 시인으로서의 자의식, 시조 쓰기에 대한 시인의식을 다룬 것. 둘째,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룬 것. 셋째, 인간과 신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형식의 제약을 받는 시조보다는 자유시의 영역에서 보다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주제적 자아가 자연과 사회,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문제와 자아성찰, 삶과 죽음, 그리고 신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는 궁극적인 관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문학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시조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대시조가 다루는 이러한 주제 영역이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시조라는 정형화된 형식 속에 시인의 세계관과 사유를 바탕으로 자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천착을 통해 현대시조의 주제의식을 내적, 형이상학적, 종교적인 차원으로 고양시켜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1) 이 글에서 다루는 시조 작품은 그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 시조 양식에 적합하고 학술적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검증된 것은 아니며, 시조 시인이 시조 전문 잡지에 게재한 것 중 현대시조의 내면적 주제의식을 비평적 이해의 지평 속에서 해석하며 살펴보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임을 밝힌다. 수록된 시조 작품은 계간 『현대시조』, 『새시대시조』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발표 연호만 표기한다.

2. 자아성찰, 시조 쓰기에 대한 메타 시조²⁾

시를 쓰는 일은 자신의 내면 깊이 자아를 성찰하는 일이다. 시인의 자아성찰이 충실할수록 시인은 영과 육, 이성과 충동, 본질과 현상의 양면에 걸쳐있는 중간자로서의 자신을 보며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때 느끼는 부끄러움은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케 하는 동력이 되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지양하고 극복하고자 시도하게 된다.³⁾ 시인으로서 느끼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은 자신과 자신의 작품 창작에 대한 분석을 가져오고 시인은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된다. 「자책」은 시인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며, 시조 쓰기의 지난함을 말한다.

광어와 도다리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를 쓰느냐는 친구에게

시인은 내면을 보지
겉은 보지 않는다고 -

2) '메타(meta-)'란 말은 대체로 'after, with, change' 따위의 의미를 지니며 주로 소설문학에 사용된 용어다. 20세기 소설에 나타난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에 대한 반성적 의식,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 극히 첨예화되었다는 점이다. 자의식적 경향이 강한 소설에 있어서 일차적인 관심사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제작 과정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즉, 소설 속에 소설 제작 과정 자체를 노출시키는 경향의 소설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메타시, 메타시조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시 쓰기에 대한, 시를 쓰는 시인의 의식에 대한 것을 제재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3)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상징적 해석』(태학사, 1999), pp.140-141. (Max Scheler, *Das Schangelihl*(Halle, 1974), 막스 셸러(홍문당, 1940), pp.77-81. 재인용)

실은
걸도 속도 다 보지 못하면서

설익은 궤변으로
독자를 농락하는

시보다
시인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진 않았는지.

(권오신, 「자책」 전문, 『새시대시조』, 2005.봄)

시인의 친구는 시인인 화자에게 ‘광어와 도다리도 구분 못하며 어떻게 시를 쓰냐?’고 장난스럽게 묻는다. 광어와 도다리는 소시민들이 일상에서 맛보는 생선이다. 그 사물의 다름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은 보편적 세상사에 대한 시인의 무지를 조롱하는 말이면서 그만큼 세상사에 초연한 시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인 친구는, 시인의 관심은 현상과 그 이면의 세계를 아우르며 사물의 외피 속에 담긴 본질과 고갱이를 찾아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은 왜소하다. 친구의 음성에 비해 더할 나위 없이 잦아드는 목소리로, 그것도 부끄러워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입속말로만 웅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시의 끝에 쓰인 ‘-(말줄임표)’로 표현된다. 시의 화자가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 친구의 안타까운 농담에 치기로나마 크게 떠들지 못하는 속내는 다음 시구로 이어진다. ‘실은 / 걸도 속도 다 보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시인이란 많은 것을 알 것이라는 흠모와 편견에 대해, 시란 사물과 세상 전체를 꿰뚫은 후에 나올 수 있는 깊은 차원의 세상 놀이, 혹은 세

상 이해의 편린일 것이라는 일상의 기대에 대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인 역시 세상의 한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존재의 심연으로 인해, 한 줄 시구를 얻기 위해 고뇌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시보다/ 시인이라는 말에 더/ 익숙해진 않았는지' 자책하는 시인의 언어야말로 어떤 은유 이상으로 돋보이는 직설화법이다.

이렇게 벗겨 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양과 껍질 벗겨 내듯
계속해서 벗겨 내면

가려진 양심의 구석
긴 때인들 남을 소냐.

(원용문, 「목욕을 하며」 전문, 『현대시조』, 2002.여름)

겉모습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인간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인간의 생래적 모습조차 인위적으로 바꾸어 놓는 기술복제 시대에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 응시, 양심의 정화를 다루는 시조 「목욕을 하며」는 일상의 단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인 의식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祭器」는 말과 호흡하면서 사는 시인들에게, 아니 문자의 신비에 '들린' 모든 문인들에게 보내는 메타시다.

굽 높은
제기.

신전에
제물을 받들어
올리는—

굽 높은
제기.

詩도 받들면
文字에 매이지 않는다.

굽 높은
제기.

(김상옥, 「祭器」 전문, 『현대시조』, 1998. 여름)

문학이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교감하는 충만한 정신의 회로이다. 문학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하여 거룩한 자세를 취할 때 드러날 수 있다. '제기'는 인간이 신의 제단에 祭物을 올리는데 쓰이는 도구이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지성소에서 온갖 정성과 염원을 담아 신에게만 드리는, 인간의 혼이 담긴 그릇이다. 일상의 시간 속에 잠잠히 숨겨두었다가 단 한번 신과의 만남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순간. 제기의 존재 이유는 신께 드리는 찰라에 드러난다. 제기가 '굽 높은' 이유는 그것의 지향이 신께 있기 때문이다.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기면 값진 그릇이 되듯 제기 역시 신께로 닿는 것 이기에 도도하게 빛난다.

시인은 제기를 시를 담는 문자에 비유한다. 시의 혼을 전달하는 언어는 祭器처럼 성스럽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과의 만남에서 제기는 단지 도구일 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신과 대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기를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시인 역시 시의 언어를 그런 경외감으로, 두

려움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문자를 초월하는 시 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궁극적 의미는 시행을 역순으로 배열해야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시를 받들면 부수적으로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소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문자라는 시의 육체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詩를 굽 높은 제기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이야기이다. 여기서 '문자에 매이지 않는 시'란 언어의 수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시의 혼이 살아있는 시를 의미한다. 시인은 祭器를 통해 시를 쓰는 시인의 자세, 시 언어를 부리는 시인의 제사장적 위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위의 시조는 문자를 초월하는 언어의 언어, 시에 대한 시 쓰기를 보여주는 메타시라 할 수 있다.

「말씀」은 시를 대하는 시적 화자의 경건한 자세를 표현한다.

천상(天上)서
은밀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더라

모두가 잠든 사이
영롱한
이슬로 와서

말할 듯
말할 듯하다
흔적 없이 지우는

(李文亨, 「말씀」 전문, 『현대시조』, 1998.여름)

시인에게 있어 '말씀', '로고스'는 곧 시의 영감이라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시의 영감이 찾아오는 그 숨 막히는 순간을 '말할 듯 말할 듯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여운으로 표현한다. 시적 화자는 한 편의 시를 얻는

것이 시인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임을 말하지 않고 천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표현한다. 그만큼 시를 창작한다는 것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영감을 소중히 맞이하는 시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시를 쓰는 건
신명(神明)이지

사람 한 일
정녕 아나

마음의 눈 귀
밝히 열려

골수(骨髓)로
사린 타래실

영혼에
심지 내려서

피로서
사른 거지.

(박영규, 「시를 쓰는 건」 전문, 『현대시조』, 2001.가을)

위의 시조 역시 창작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시인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사람과 사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장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독자의 감각 속에 미적 충격을 주고 시인이 느낀 정서의 깊고 그윽한 아취(雅趣)를 공감하게 하는 시인의 역할에는 고통이 따름을 보여준다.

氣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지만

그 不幸을 잔잔한 言語를 골라 詩
로 엮고,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다면

選擇된 사람일지니
놀라운 幸運아닌가.

(선정주, 「選擇에 대하여·1」 전문, 『새시대시조』, 2005.봄)

위의 시조는 시인의 삶, 시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인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사 풍랑을 벗어난 무풍지대에서 음풍농월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긍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만큼 넉넉한 삶을 누리는 낙관주의자도 아니다. 오히려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일의 파장에도 흔들리고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 그로부터 빚어진 경험으로 시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고통의 사람이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불행조차 언어의 그물로 엮어 시로 만들고 그 언어가 환기하는 역설과 상징을 통해 못사람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미적 체험의 세계로 인도하는 고독한 순례자가 곧 시인인 것이다.

시의 화자는 이런 시인의 운명을 '선택된 사람'으로 표현한다. 선택의 주체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놀라운 행운'이 되는 결과를 볼 때 시인의 운명, 시인이라는 천명은 결코 함부로 얻어질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보여준다. 위의 시조는 시 쓰는 자신의 실존을 시로 말하는 메타시의 영역에서, 시인의 존재 의의를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3. 죽음의 타나토티스와 현실인식

삶과 문학이 함께 하는 한, 죽음은 항상 문학의 영원한 주제가 된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큰 사건 밖에 없다'⁴⁾는 말이 있듯이 존재하는 생명은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 생사유전(生死流轉)의 법칙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인식과 평화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며 인간을 견허하고 경건하게 하기도 한다. 죽음이 있기에 인간은 삶에 대해 사유하고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죽음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고, 현생과 내세의 삶으로 우리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 문화 속에 깃든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현상처럼 문학에도 죽음에 대한 기억은 바래지 않고 출몰한다.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타자의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내 의식과 정서에 변화를 주게 된다.⁵⁾ 시인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사람과 사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장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에게 죽음이 실제적 사건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친의 죽음을 맞을 때이다. 그 순간의 충격과 아픔은 그대로 문학의 한 소재가 된다. 생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다면 죽음의 타나토티스(Thanatopsis: 死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시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죽음의 흔적을 따라가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시인의 내면에 담긴 이야기를 읽는 것은 필요하다. 기억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베르그송이 분류한 대로 습관적 기

4) 이재선, 『우리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소설문학사, 1987), p.250.

5) 유효중, 『떠남 혹은 없어짐-죽음의 철학적 의미』(책세상, 2001), pp.13-20.

역과 진정한 기억이다.⁶⁾ 습관적 기억과는 달리 진정한 기억은 일회적인 특수한 사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회상되는 것이며, 과거를 인식하고 보존하고 재현하는 기능을 가진 기억이다. 시인의 기억의 저장고에는 쉽게 지울 수 없는 사건들이 언제든지 현재적 사건으로 쌓여있다. 죽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예민한 시인의 기억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시는 경험적 사건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낮달」은 제목만으로는 죽음의 심상을 찾을 수 없다. 낮달은 하나의 은유다.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사물을 통해 어떤 감추어진 의미를 추상하게 한다.

잊자더니…
잊어버리자더니…아 아, 天倫일레…

네 그림자 지우려고
피를 쏟던 육자배기

예까지
또 따라와서
목이 메는
하늘 한 끝.

(홍오선, 「낮달」 전문, 『새시대시조』, 2005. 여름)

‘낮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 하늘 한가운데 있으나 낮의 밝음으로 선연히 드러나지 않던 달. 어둠의 배경 없이 흰 빛으로 떠오른 낮달의 이미지는 아련하다. 보일 듯 말 듯 새하얀 그리메를 하늘 한 자락에 남

6) 김준오, 『시론』(삼지원, 1994), pp.312-313.

기지만 누군가 그 존재 자체를 눈여겨 바라봄이 없다면 그저 잊혀질 수밖에 없는 아스라한 달의 운명. 낮달은 부르는 순간 이지러질 것만 같은 아픔, 백색 한기를 담고 있다.

시적 화자가 경험한 장성한 아들의 죽음, 천붕지통(天崩之痛)의 아픔이 묻어난다. 낮의 밝음 속에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또렷한 고통의 흔적, 그 처연한 아픔의 기억은 낮달의 이미지와 닮았다. 문학텍스트를 자아표현의 산물로 보는 표현론의 입장이 아니어도 시인의 감정이 투사된 시에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들이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아들의 죽음을 지울 수 없는 '진정한 기억'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한무숙, 박완서 같은 여류 소설가들 역시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한 맺힌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며 해원(解冤)한다. "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어야 한다"는 말처럼 감정을 승화시키고 고통을 감내한 시인의 언어는 속울음을 삼키는 종장에서 맺혀진다. 아픈 기억이지만 시적 진술로 다시 한 번 살아날 때 시인은 상심한 자아를 회복하고 새로운 화해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친구 장례식장에서」는 뜻밖의 죽음을 맞은 장례식장의 스산한 풍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제 명대로 살아도 갈 때는 서러운데
 뜻밖의 비명횡사 어찌 말로 다 하라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도 또한 명인 것을
 아직은 더 살아야 할 친구를 보내고 나서
 못 잊는 마음들이 빈소에 모여 앉아
 추억을 안주 삼아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조금 빨리 갔다고 치자며
 연거푸 잔을 들던 한 친구는 잠이 들고
 너무나 허망한 죽음에 남은 이들은 밤을 새웠다.

(권오신, 「친구 장례식장에서」 전문, 『새시대시조』, 2005, 여름)

친구의 죽음을 문상하는 장례식장의 모습이 그림처럼 명징하게 떠오른다. 예기치 않은 친구의 죽음을 맞은 이들의 황망한 모습이 눈에 선할 정도로 그려져 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의 죽음이 남긴 아쉬움은 남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아쉬운 죽음처럼 시조 자체도 무언가 미진한 느낌이 남는다. 시의 화자가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음이다. 빈소의 풍경을 스케치하듯 그리고 있지만 시가 담아야 하는 경험자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감정 묘사가 빠져있다. 객관적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주관적 정서의 표현이 부재할 때 마지막 행의 결구처럼 시적 긴장감은 감소된다.

「하관」은 장례의식의 마지막 단계인 하관을 시조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

직관의 숲이거나 에돌아든 강이거나
 불끈 권 주먹손도 저문 산에 풀어 놓고
 가슴에 쌓인 적요를
 사루는 새를 본다.

추적추적 밤비소린 생전의 음률같이
 적적한 현을 타고 장강으로 흐르더니
 산녘의 안개구름이
 찻찻으로 드리웠다.

보듬고 가꾸어온 그 미련의 보시기를
 산자의 발길 위에 각인하지 않으려는
 승천한 새의 적요를 또 다른 새가 본다.

(이영주, 「하관」 전문, 『새시대시조』, 2005.여름)

시적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마지막 죽음의식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시조 속에 등장하는 승천한 새는 죽은 이의 분신이다. 죽어서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고리를 소중히 하듯 죽은 이는 산자의 삶에 그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적요를 혼자 사루며 죽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 그 뒤로 남겨진 이들의 그리움이 느껴진다. 시적 화자는 하관의 시·공 속에서 만난 산새의 비상을 죽은 이의 화신으로 여긴다. 동양적 사생관, 불교적 윤회의식의 시적 표현이다. 마지막 수의 종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새'는 망자를 만나기 위해 이미 동류의 새로 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愚問」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죽음의 시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타인의 주검 앞에서만 죽음을 실감하는 인간의 무딘 의식은 자신에게 남겨진 생의 길이를 재고자 한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내게 남겨진 살아갈 날의 길이를 신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그날을 알 수 없기에 시적 화자는 남기고 버릴 것을 미리 정리하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죽음이 준비되었다면 사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예가 어디쯤인지
아는 사람 누구 없소?

남길 것 버릴 것
정리할 시간 있소?

下官을 지켜보다가
天神에게 물었다.

(최숙영, 「어떤 愚問」 전문, 『새시대시조』, 2005.여름)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관심사다. 삶은 현실의 문제로써 중요하고 죽음 역시 삶의 방식을 규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죽

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깊은 담론은 시의 영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시조의 경우도 죽음을 맞는 직정적 감정과 죽음의식을 치르며 느끼는 단상들이 표현되어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천착은 시보다 산문의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창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죽음에 관한 다양한 제재가 시조의 영역에서 주제화되는 것은 현실적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4. 신에 대한 물음, 회의, 순명 - 기독교적 표상과 인유

“예술가가 되려면 그만큼 처절하게 종교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⁷⁾는 말이 있다. 시는 형이상학이나 종교는 아니다. 시인이 지닌 사상이나 시적 동기가 숭고할지라도 시로써 형상화해내는 자질이 부족하다면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없다.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거나 진리를 설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작품 속에는 언제나 형이상학적 가치질서 혹은 종교적 가치질서가 스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⁸⁾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제로 시조를 형상화한 작품들은 관심을 끈다.

진정한 시인은 실제의 진실을 어떤 틀 속에 가둠으로써, 진실을 희석

7) 조만, 고진하 편역, 『현대문학과 종교』(현대사상사, 1987), p.99.

8) T.S Eliot의 경우도 “모든 일류 시에는 도덕적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선악의 문제이다”, “문학은 건전한 신학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와 같은 입장을 밝혀 문학과 종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최종수, 『문학과 종교의 대화』(성광문화사, 1997), p.40. 김희보, 『기독교 문학은 무엇인가』,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 지성사, 1984), pp.144-145.

시켜서는 안 되고, 자신이 지닌 믿음뿐만 아니라 의심과 회의도 정직하게 드러내야만 한다.⁹⁾ 시인의 자아 속에 깊이 침잠해 있는 욕망과 시인이 꿈꾸는 것들에 대해, 시인은 아름다움과 성스러움뿐만 아니라 권태와 약까지도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다.

選擇은 내게 恩寵이오나
神께는 한없는 손실입니다.

나는 내 故郷을 버리지 못하고 女人도 사랑하고 싶어 하나이다.
내 아버지를 향한 깊은 연민의 情은 아마 죽는 날까지 갈 것입니다.
不幸의 날들은 내 속에서 愛着的 불을 지피고 있어, 神의 뜻이 발붙일
한 치의 틈도 없습니다.

밤이면 아브라함을 읽고 감탄하면서도
그런 指命이 내게 있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선정주, 「指命」 둘째 수, 『겨울청산도』, 1985)

위의 시조는 중장을 길게 한 사설시조 형식을 취한다. 초장과 종장은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중장이 길어진 것은 초장의 관심을 종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공감의 획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길어진 중장이 시조의 율격과 리듬을 깨지 않고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짚은 박자'¹⁰⁾로 유지되는 시의 긴장

9) 찰스. 글릭스버그, 「현대문학에 나타난 종교성의 부활」, 조만, 고진하 편역, 『현대문학과 종교』(현대사상사, 1987), p.98.

10) 짚은 박자는 우리의 전통적 시가가 지녀온 중 창작 기법의 하나로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속에 몰입하게 한다. 선정주의 경우 어휘 배열의 순서에 대한 배려, 삽표, 마침표 등의 부호를 통해 적당히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김영민, 「시조의 작품적 성과와 운율의 역할」, 『현대시조』 통권 26호 참조.)

이 있기 때문이다.

시조의 형식만큼이나 시의 주제가 부각되는 것은 기독교적 제재를 통해 시인 자신의 내적 갈등을 정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신 앞에 선 인간의 심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 시조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철학과 일치하는 소재를 선택하지만, 정해진 틀 속에 그것을 가두고 한정된 패턴을 작품에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인격 안에 있는 신앙에 회의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요소들까지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를 읽으면서도
차마 죽지 못하고
富者의 床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延命하는 주제에
選民이라는 말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선정주, 「나사로의 祈禱 其1」 전문)

시의 제목에 나오는 '나사로'는 성서에 나오는 거지의 이름¹¹⁾이다. 시의 화자는 성서 속의 인물과 사건을 인유¹²⁾하여 작가가 의도한 시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위의 시에는 신의 의지,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의문, 인간의 항변 같은 것들이 정직하게 드러난다. 일상의 삶 속에, 부조리한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지 않는 듯한 신의 침묵에 대해 시인은 투정하듯 말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때, 그는 불가피하게 존재의 불가사의한 국면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종교적 의식은

11)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참조.

12) 인유란 문학작품 속에서 대상의 인물, 장소, 사건, 다른 문학작품 또는 글귀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상징적 해석』(태학사, 1999), p.161.

결코 어떤 정착된 것, 결코 침해를 받거나 의문시되어질 수 없는 최종적으로 확립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위기와 갱신의 상태 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확인시켜 준다.

위와 같은 시조 세계의 사상적 근원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세계 인식이다. 기독교 신앙의 사유 체계 안에서 생의 관점들이 확립되고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초월적 비전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시세계가 생경한 종교적 언어에 함몰되지 않고, 호교적 신앙시로 축소되지 않는 것은 그의 시 창작이 창조적인 자유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인간의 조건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다양한 회의나 갈등을 느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신앙에 대한 깊은 긍정과 순명이 담겨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제로 다룬 시는 대체로 부활, 재림, 심판의 기독교 신앙을 신념으로 보여주는 묵시문학(Apocalyptic Literature)의 특징을 지닌다. 묵시문학이란 일종의 인간 종말에 대한 암시를 뜻한다. “묵시문학은 비의적, 영상적, 상징적이며 환상적인 각본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되는 동물들, 천사들, 별들 등 기타 많은 것을 배역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¹³⁾고 한다. 묵시문학이 인간의 죽음, 부활에 대한 비유적 암시를 나타내는 주제 위주의 문학 의식이라고 할 때, 현대시조에서 그런 작품을 읽는 것은 주제 연구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완성된 시작품은 단순한 미학적 이해만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상징의 조직체이며 신화의 구조물이다. 시의 견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징이야말로 시적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시인이 지닌 신앙은 이 때 시의 상징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이며 시인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박이도, 『한국현대시와 기독교』(예전사, 1994), p.85.

누가 瞬間을 물으면
이슬을 보라 하리.

딱 한 번의 일이지만
千의 時間이 들어 있다.

길고 긴 이품의 길이를
바람은 알 리 없네.

(선정주, 『非詩·42-殉教』 전문, 『非詩』, 현대시조, 2001)

위의 시조는 시인 자신도 겸양의 말로 “이러한 것도 시가 될 수 있을까”하여 붙였다는 『非詩』 연작 중 한 수이다. ‘순교’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나 죽음의 흔적은 없다. 시 속에서 화자와 세계는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의 화자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세계 속에 수용하고 있다. 순간을 물으면 이슬을 보라 한다는 禪問答 같은 구절은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 부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보여주는 시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중장에서 말하는 千의 시간이 들어 있는 딱 한 번의 일이란 ‘죽음’ 곧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와 부재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일회적인 것이며 순간을 통해 맞이하는 살아있는 것들의 결국이다. 그러나 그 일회성의 죽음이 천의 시간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곧 ‘죽어서 사는’ 역설¹⁴⁾의 이치를 보여주는, 시적 화자의 기독교적 세계 인식의 기미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14) Cleanth Brooks는 *The Well Wrought Urn*에서 “시인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히 역설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고 하며, 역설은 시에 적합하고 불가피한 언어라고 했다. 클리언드 브룩스, 이경수 역, 『잘 빚어진 항아리』(홍성사, 1983), p.7.

불멸하는 것들의 영원성을 말하기 위해 이슬의 순간성을 부각시키고, 존재와 부재의 찰나적 의미를 비유하는 언어의 상징과 압축을 다스리는, 절제된 감정은 시인의 자아가 세계의 질서와 하나가 되는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죽음 속에 깃든 아픔, 풀잎에 맺힌 이슬의 반짝임 뒤에 사멸할 부재의 순간을 시인은 놓치지 않는다. 종장의 '바람조차 알 수 없는 길고 긴 아픔'은 죽음 후의 심판을 생각나게 한다. 시인은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 깃든 생명의 의미, 그 시작과 마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시인이 시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시적 역설'이다. 이는 진술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술과 그것이 가리키는 상황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모순은 진리를 함축¹⁵⁾하고 있기에 의미 있는 것이다.

4. 결어

지금까지 현대시조의 몇 가지 주제의식을 작품 해석과 더불어 살펴 보았다. 시조의 제재를 인간사의 외부에서 취하기보다는 시인의 자아, 혹은 인간사의 내면에 깃든 근원적 문제에 천착하여 시조의 주제로 형상화한 작품을 그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성찰과 시인의 자의식과 시인의식을 다룬 시조 유형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시조 속에는 한 편의 시를 얻기까지 고뇌하는 시인의 고통과 시 창작 과정이 표현되며, 시란 시인의 재능만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시의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을 겸허하게 맞이하는 자세, 언어를 부리는 시인의 자세에 대해 말한다. 시인 자신이 자아에 대한 인

15) 김준오, 『詩論』(삼지원, 1994), p.228.

식이 치열할수록 시인을 천직으로, 천명을 받은 자로 여기며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준다. 시인을 '선택받은 자'로 여기는 긍정적 시인 의식은 시 쓰기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며, 메타시조 형식의 시, 시 쓰기에 대한 '시론'격의 작품들이 이러한 주제의식을 기반으로 창작되고 있다.

둘째,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룬 시조는 죽음의 타나토시스(Thanatopsis: 死觀)를 표현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관심사다. 삶은 현실의 문제로서 중요하고 죽음 역시 삶의 방식을 규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깊은 담론은 시조의 영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시조의 경우 죽음을 맞는 직접적 감정과 죽음의식을 치르며 느끼는 단상들이 제재로 사용되지만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천착과 이를 형상화하는 것은 운문보다 산문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죽음에 관한 다양한 제재가 시조의 영역에서 주제화되는 것은 현실적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생의 깊은 이면에 깃들인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셋째, 인간과 신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의식은 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시조의 경우 속악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삶을 방관하는 신의 의지에 대한 항의와 불만,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조 속에는 역설적으로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순명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시조는 기독교 세계관과 종교적 신앙을 주제로 표현할지라도 시인이 지닌 자유로운 시 정신과 창작태도가 있다면 생경한 종교적 언어에 함몰

되지 않고, 호교적 신앙시로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주제들은 시조의 정형화된 형식 속에서도 자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시인의 깊은 관심과 천착은 현대시조의 주제의식을 내적, 형이상학적, 종교적 차원으로 고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현대시조』, 『새시대시조』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84.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4.
박이도, 『한국현대시와 기독교』, 예전사, 1994.
유호중, 『떠남 혹은 잊어짐- 죽음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2001.
이재선, 『우리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7.
찰스 I 글릭스버그, 조만, 고진하 편역, 『현대문학과 종교』, 현대사상사, 1987.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상징적 해석』, 태학사, 1999.
최재선, 『진정성의 시학』, 푸른사상사, 2002.
최종수, 『문학과 종교의 대화』, 성광문화사, 1997.
클리언드 브룩스, 이경수 역, 『잘 빚어진 항아리』, 홍성사, 1983.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the themes of modern Sijo

Choi Jae-Sun

The poetic theme is a unified principle of which a poet writes poems out in his work. Theme is a poet's central thought expressed in

his works. And it was described on the basis of writer's view of the world and life.

In this study, I divided the themes of modern Sijo into three kinds according to the materials for a poem. Especially I am interested not so much in the poems taking outer problems of human life for the subject of a poem as in poems dealing with fundamental problems of human life such as self-consciousness, death, God's presence.

Firstly, in modern Sijo which deals with poet's self-reflection and self-consciousness as a poet, poets examine himself. And he intends to write poems more severely. The more poet reflects self-consciousness, the more earnestly he tries hard to write good poems. As a poet, he feels complication between real-self and ideal self, so he tries to conquer the shame made in the gab of them. And he takes writing poems into his divinely appointed work in life. A kind of meta-Sijo is written in this circumstances.

Secondly, there are modern Sijo, which shows deep concerns in death problems of human life. Thanatopsis expressed in modern Sijo is connected with poet's personal experiences. In most cases, poet describes fragmentary thoughts, sorrows and agony after death of his intimate persons. In Sijo, however, poets don't dig into the death problem deep enough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genre. But it is very significant work to take various materials of death into poetic themes in Sijo in that it makes us to reflect of human attitude of life.

Thirdly, the poetic themes of dealing with fundamental problems of human and God are expressed in Sijo based on Christian view of the world. In such a poems, poet complains to God who looks in illogical

human situations as a spectator of vulgar realities of life. But ultimately, poet expresses deep affirmation and obedience of God in his poems. So he manifests Christianity by the poetic paradox. Such poems change over the theme of modern Sijo the superficial problems of reality to the deep situation of life.

Keywords : Modern Sijo, Thematic consciousness of Modern Sijo, Meta-Sijo, Self-reflection, Thanatopsis, Christian view of the world, Poetic Paradox

논문투고일 : 2006년 6월 1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7월 18일